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



행복하게

보도	2026.9.23.(수) 07:30	배포	2026.9.22.(화)	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	책임자	국 장	정은정	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이종진	(02-3145-8022)
	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남태	(02-3145-7050)
		담당자	부국장	임연하	(02-3145-7060)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☐ '26.9.23.(수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개 은행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
 -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,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음

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요

- ☒ 일 시 : '26.9.23.(수) 07:30 ~ 09:00
- ☒ 장 소 : 금융감독원 11층 제1회의실
- ☒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찬진 원장, 박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, 은행감독국장 (금융권) 은행연합회장 및 8대 은행지주회장

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
 - 금년 하반기를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,
 - 내부적으로는 은행장 등 70여개 자회사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'변화의 시기'라고 평가하며
 - 금융권이 공정한 원칙에 기반한 업무처리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

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자회사 CEO 선임

- 자회사 CEO 선임 시 특정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됨 없이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
 - 특히, CEO 후보군 선정, 검증 및 평가, 기록 등 일련의 승계절차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승계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,
 - 지주회사의 자추위는 CEO 후보 추천, 검증 및 선정 과정에서 「금융사지배구조법」과 모범관행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의 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*을 수행하도록 보장해 줄 것을 강조
- *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 제공, CEO 후보 평가시 임추위원의 의견 반영 등

② 지자체 금고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 당부

- 최근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과정에서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금고 운영이 사업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은 이해하나,
 - 자본력의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
- 지자체 금고 입찰을 이해타산의 관점보다는 ‘지역 내 자금 순환’과 ‘지방 균형발전’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,
 - 금감원은 향후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것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임을 강조

③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

-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노력*에도 불구하고, 최근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외부인 사기**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***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강조

* 내부통제 혁신방안(‘23년), 여신 프로세스 개선 T/F(‘24년), 책무구조도 도입(‘25년) 등

** 소득·재직증명서 위변조, 담보평가액 부풀리기, 허위 분양계약서 이용 등

*** 은행권 금융사고 현황 : (‘23년) 33건, 696.9억원 → (‘26.1~7월) 47건, 1,708.2억원

-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며,
 - 지주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자원 확보와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실행을 요청하였음
 - 앞으로 금감원은 위규행위 발생 시 평가·보상 체계의 적정성, 조직차원의 유인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
- 마지막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 없이는 금융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,
- 은행지주회장들도 중요 의사결정 전에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당부하였음

3

참석자 발언 요지

-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, 소비자 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,
-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 발전,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
- 은행지주회장들은 공정하고, 투명한 원칙에 기반하여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,
-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,
 -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금융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

(별첨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